

올해 양봉경영은 불벌 양성이 원만치 못해 풍작 여건의 아카시아 유밀기를 아깝게 놓쳐버렸고, 여름철 이후 현재까지 벌꿀 작황은 신통치 못하나 꿀벌 양육번식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와 다행입니다.

올 들어 우리 업계 정황과 본 협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상황이므로 저는 다음 6가지 부문에서 내년 전망이 밝다고 감히 말씀드리자 합니다.

벌꿀도매시장 아카시아꿀 품귀현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산 농가에서는 판로가 원만치 못해 겪은 고생이 올해 들어 반전된 상황입니다. 금년 초까지는 일부 판매업자는 벌꿀 수매를 서두는 기세가 아니었는데, 특히 잡화꿀은 천대받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올 중반기에 접어들어 아카시아꿀 수요 급증 등 이번이 생겨 판매업자들은 현금 수매, 나아가서는 매물선점 경쟁이 벌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전에 없던 역전 현상 속에 꿀 시세도 오른 편이고 천대받던 잡화꿀 역시 유통이 잘 돼가고 있는 현상에 모처럼 생산농가는 이제 적당한 대접(?)을 받게 된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벌꿀 국내반입 기필코 막는다

천연꿀이 내년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가 된다 하더라도 양허관세 적용이 97년기준 증가세로 262%의 고율관세이지만, 본협회는 종량세 적용을 원해왔기 때문에 벌꿀 수입가격이 얼마였던 간에 kg당 2,009원이 적용되고 1드럼(288kg기준)일 경우 578,592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연꿀 국제시세 최하한가가 1kg당 1,400원일 때, 드럼에 403,200원의 수입가격에 관세 포함 국내도착 가격은 981,792원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신용장 개설에 현금불입 부담까지 포함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산 잡화꿀 시세와 견주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달 협회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북한산 로알제리 국내반입 문제를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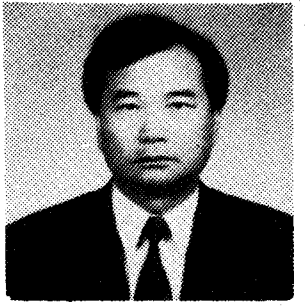
만약 천연꿀이 이런 모양으로 전개된다면 북한의 아카시아·피나무꿀 등이 관세 한푼 없이 드럼당 40만원 정도에 반입, 국내 시판이 홍수를 이룰 것이고 우리 양봉농가는 한순간에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견될 상황에 대비해 본협회는 지난해부터 대 정부에 로알제리에 이어 앞으로의 벌꿀도 제한품목으로 묶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정부도 지금은 양

책임자 앞으로 즉각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는 본협회로 문의 바람)

97 꿀벌방역비 예산 대폭인상 건의

올해 진행 중인 꿀벌응애류구



한국양봉협회 회장 丁海雲

97년 「양봉농가」전망 밝다

한국양봉협회 회장 丁海雲

봉부문에 깊은 이해로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 97-98년간 꿀벌병충해연구 착수

꿀벌 및 화분수입 자유화 이래 꿀벌 병충해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접한 본협회는 대정부 건의로 금년부터 내년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연구비 1억3천3백여 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특정연구과제 「꿀벌응애류및 질병의 방제기법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농생과 학대학 우건석 교수를 총괄 책임자로 하고, 응애류기생충 분야는 우건석 박사, 백목병 분야는 서울대농생대 강석권 교수, 세균성 질병 분야는 수의과학연구소 윤용덕 박사, 기술적 사양 관리 설문조사 분야는 본협회가 맡고 있으며, 본 연구사업이 97년 마무리되고 98년중에 연구보고서가 배포되면 98년 하반기부터 현장 실용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건 현장의 이상 징후의 자료를 담당 연구

제 방역사업에 이미 국비 2억5천2백만원(60%부담), 지방비 1억6천8백만원(40%부담) 합계 4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의 양봉농가에 약품이 배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후로 올해까지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입안, 시행되기까지는 본협회가 우리 양봉농가의 어려운 실정과 수입자유화를 앞둔 시점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당국에 이해시키는 데도 적잖은 노력과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림부의 축산행정이 소·돼지·닭 등 주육축 위주로 퍼졌고, 그중에 가축방역사업 부문에서 3년전 꿀벌을 새로 포함시키기란 뒤늦게 시작한 만큼 사안해결이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협회는 내년 꿀벌방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을 건의해 놓고 심의대기중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농림부 예산이 올해보다 4.8%

축소편성된 상황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예산 확보는 가능성이 없어보일런지도 모르나 지금 검토과정으로는 순항을 걷고 있다는 것으로 내년 양봉농가에 대한 방역약품 배분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봉농가 양봉교육·전시홍보비 국비보조 신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육축 부문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과 축산물의 전시 및 홍보비의 정부 보조금이 예전부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업들이 정리 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 뒤늦게 우리

양봉 부문이 한 축 끼여들기란 엄두조차 못 낼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 총회 및 양봉산물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소비시장확대 운동 성과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사업 전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때 우리가 경험했던 애로점, 즉 본협회의 재정 형편의 한계와 전남지회의 눈물겨운 모금운동을 벌인 감명과 충격은 컸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것이고 마침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과정에 들어갔으므로 내년에는 양봉농가 교육 및 양봉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 규모는 적더라도 처음으로 지원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카시나무 밀원 보호·증식에 관한 문제

우리 양봉농가들은 아카시나무를 보호·증식 문제를 높게 외치면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지 개발을 실천에 옮긴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은 물론 관계

당국의 공무원들조차 우리 양봉가들이 원하는 방향의 아카시나무림 조성은 커녕, 오히려 악수론만 거세지는 상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협회는 장기적으로 밀원 보호·증식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양봉인들 자력의 밀원 조성 자세가 없는 한 가능한 일은 한국아카시나무연구회 운영위원을 통하여 현안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임경빈 박사님을 비롯한 몇 분 안되는 학자님들의 아카시나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힘입어 아카시나무연구회가 존립되고 있고 본협회는 이에 재정지원은 충분치 못한 수준이고 그나마 가능한 것은 주로 인적 지원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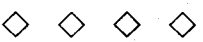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회 운영이 임업관계자나 임학계에서는 관심 밖의 대상이고 양봉인들의 참여율도 극히 저조하여 연구회운영은 매우 난감하고 외롭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회는 금년 중에 벌인 사업 중 하나는 아카시나무를 악평하는 학자들을 불러 모아 공개토론을 벌여 더 이상의 악평은 나서지 못하도록 한 점.

또 하나는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아카시나무의 개화기 예측 및 장화기·다밀성 우량개체 증식에 관한 연구」의 특정연구과제로 정부에 약 3억여원의 연구사업 예산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정부 심의에 통과된다면 아카시나무의 산림·밀원자원 활용과 경제 수증으로서의 임목육종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카시아 밀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자생밀원 이용 차원을 벗어나 앞으로의 장기적 과제는 밀원의 자력 조성에 의한 양산체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는 의지가 더한층 필요하고 적어도 가능한 일이라면 아카시나무연구회 회원 배가운동 및 회비 납부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계절 소상 포장으로부터 해방

그동안 心田소상을 애용해 주신 봉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心田소상은 조춘 꿀벌번식이 가온한 군과 같이 이상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고, 증식군 사양관리에 최고 이상적이며 또한 화분매개로 이용되는 꿀벌은 본소상으로 활용시 농가의 일손을 덜어줌으로써 하우스재배 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꿀벌월동시 안정적인 면에서 타 소상보다 월등히 효과있음이 사용해 본 봉우님들로부터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아낌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새로운 품질의 봉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봉우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心田농축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심전농축기의 특징

- 1. 상온 18℃부터 증발시킴으로 꿀의 색상변질이 전혀 없음
- 2. 농축기의 생명인 진공펌프의 수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므로 펌프의 수명은 반영구적임
- 3.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음
- 4. 냉각수가 전혀 필요치 않으며 이동식으로 제작되었음

(주)정양수지 대표이사 안재형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35-19 (장기농공단지 내)
대표전화 (0416) 52-3319, FAX : (0416) 54-3468 (예금주 안병권, 우체국 온라인번호: 310045-0025769)